

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23년 10월 26일
-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(교통국장)
-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7일

2. 제안이유

-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(안 부칙 제2조)
 - 존속기한 : 2028년 12월 31일까지(5년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

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도시철도 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,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제2항과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안 부칙 제2조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는데, 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- 대구시에서는 도시철도 1~3호선 노후시설 교체, 도시철도 4호선 신규 건설, 교통공사 운영지원 등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'23년 11월 기준으로 3,861억원을 편성·운용 중에 있으며,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도시철도 건설 및 시설물 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시 입법예고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이 가결⁵⁾되는 등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의 절차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도시철도망 확충과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대중교통 이용환경 및 안전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,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

5) 예산담당관-11460(2023.9.18.) “제6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(특별회계 조례 존속기한 연장) 결과 통보
- 「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존속기한 연장(안) : 원안가결

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, 어려운 대구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회계 운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.

○ 그 외 안 전반에 대해서는 법제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.

□ 이상으로,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